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
알림바이블 대본집

Ep.007

이삭을 바친 아브라함

(창세기 22:1~19)



“응애! 응애!”

**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기적처럼 찾아온 아기!
두 사람은 아기의 이름을 ‘이삭’이라고 붙여주었어요.
‘이삭’은 ‘웃음’이라는 뜻이었는데**

**하나님께서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
말씀하셨을 때 두 사람이 모두 피식 웃었기 때문에
이런 이름을 지어준거죠.**

**“허허허 이삭아, 이 애비한테 재롱 피울 때 모습이
꼭 천사 같구나.
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 이삭!
우쭈쭈 우쭈쭈!”**

**이삭이 자라면 자랄수록 아브라함은 이삭을 더욱 사랑했어요.
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었기 때문에
특별히 더 사랑해주었죠.**

**자신의 아들 이삭을 통해 밤하늘의 별들처럼
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난다는 약속...!
아브라함은 생각만 해도 좋았어요.**

하지만 하나님께서는, 마지막으로 한 번 더
아브라함을 시험해보기로 하셨어요.
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
확인해보고 싶으셨죠.

“아브라함아. 네가 어디있느냐”

**“예, 하나님. 제가 여기 있습니다.
저를 부르셨습니까?”**

**“그래. 내가 너에게 시킬 것이 있단다.
너는 내가 일러주는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
나에게 제물을 바치거라.”**



**“제물이요? 아유,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.
당연히 바쳐드려야죠.
저에게 이삭을 선물해주신 하나님께
제가 뭐가 아깝겠습니까.
뭐, 양고기를 올릴까요? 소고기를 올릴까요?
말씀만 해주십시오! 허허허.”**

**“아브라함아. 이번에 네가 바칠 것은
아주 특별한 제물이란다.
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함께 데려가서
이삭을 제단 위에 묶고
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치거라.”**

“예??? 하지만 하,하나님...!”

**아브라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.
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라니!
그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?**

**하나님께서서는 왜 이런 일을 시키시는 것이고
아브라함을 통해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
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?**

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.
그저 한참동안 멍하니 있을 뿐이었죠.

하지만 이내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!

**‘그래 결심했어.
지금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
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.
그분이 괜히 그러실리가 없어.
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거야.
그래.. 결심했어.’**

The background features a soft, pastel-colored illustration. On the left, a man with a long white beard and a blue robe is shown from the waist up. In the center, a child with brown hair is lying down, possibly sleeping. On the right, a white sheep with a grey face is visible. The overall scene is set in a bright, outdoor environment with a light blue sky and a green field.

다음 날 아침, 아브라함은 새벽부터 일어나서
나귀를 준비했어요.
태워 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필요한 장작도 가득 실었죠.
두 명의 하인에게 나귀를 끌게 하고 이삭도 불렀어요.

아무 것도 모르는 이삭은 그저 신나있었죠.

**“우와! 아버지, 오늘 저희 하나님께
제물을 바치러 가는 거죠? 엄청 기대돼요!
높은 산도 오르고 제물 바치는 거 구경도 하고!
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신나다구요! 헤헤.”**

천진난만한 이삭의 모습을 본 아브라함은
눈물이 날 뻔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.

“그..그래. 어서 가자꾸나 이삭아.”

그런데 산으로 가는 중에 이삭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!

**“어? 이상하다? 아버지, 아버지! 큰 일 났어요!
여기 보면 장작도 있고 또, 불도 준비돼 있는데
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없잖아요.
제물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왔나봐요!
어떡하죠 아버지?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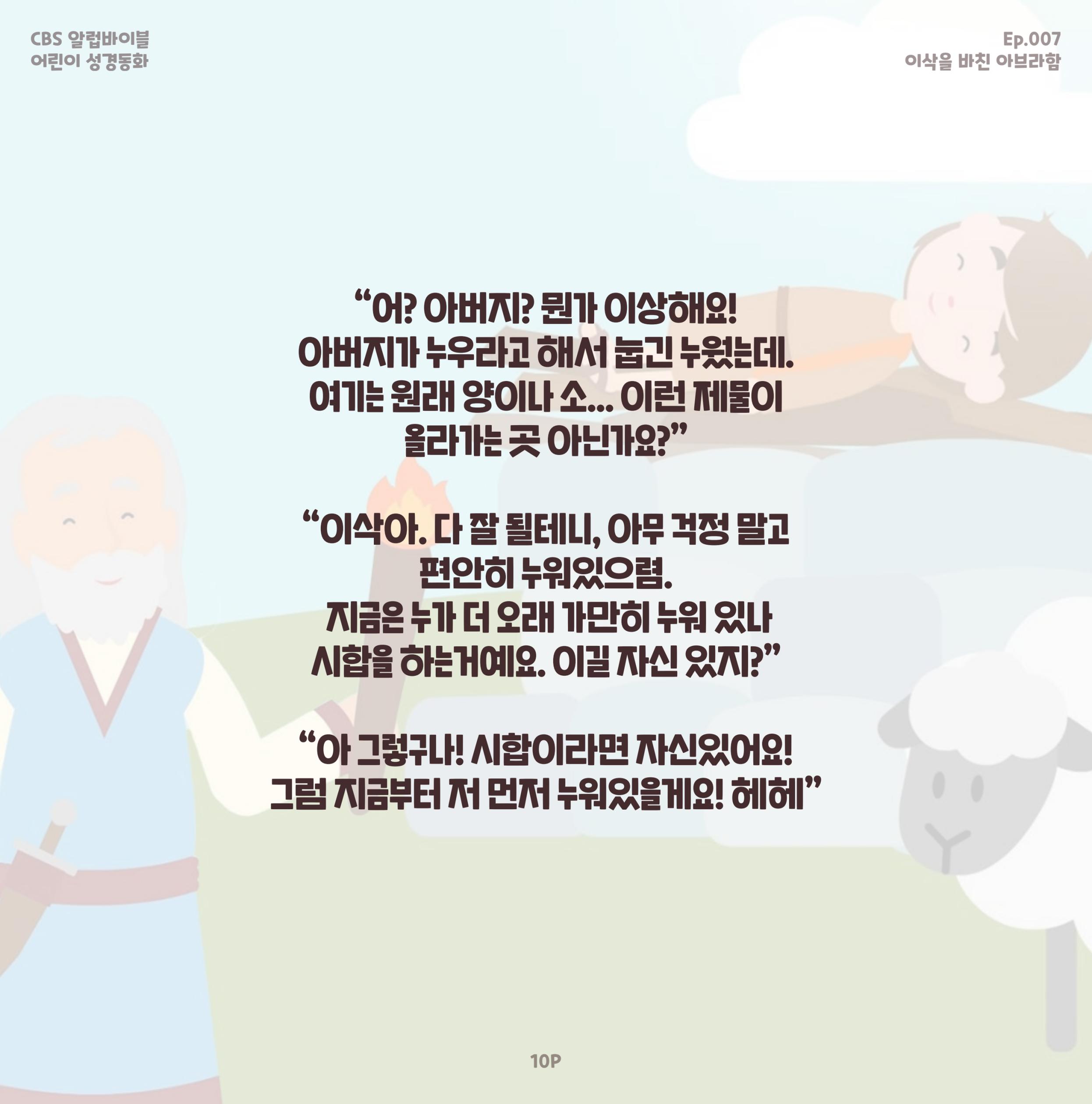
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.

“이삭아, 이번 제물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거란다.”

그렇게 일행은 마침내 산 꼭대기에 도착했어요.

아브라함과 두 하인은 제단을 쌓고
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나무에 불 피울 준비를 마쳤죠.

그리고 아브라함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한 뒤!
이삭을 제단 위에 눕게 했어요!



**“어? 아버지? 뭔가 이상해요!
아버지가 누우라고 해서 눕긴 누웠는데.
여기는 원래 양이나 소... 이런 제물이
올라가는 곳 아닌가요?”**

**“이삭아. 다 잘 될테니, 아무 걱정 말고
편안히 누워있으렴.
지금은 누가 더 오래 가만히 누워 있나
시합을 하는거예요. 이길 자신 있지?”**

**“아 그렇구나! 시합이라면 자신있어요!
그럼 지금부터 저 먼저 누워있을게요! 헤헤”**

눈을 감고 누워있는 이삭을 바라보며
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?

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여기는 사람을 곧 잃게 된다고
생각해보세요!

분명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거예요.
하지만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은 결국 제단에
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!

당장이라도 장작에 불이 붙을 것 같은
바로 그때!

“아브라함아. 그만 두거라. 스톱~!!”

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셨어요.

**“아브라함아, 이제 나는 알았단다.
네가 나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한다는 걸 말이다.
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거라.
내가 진짜 제물을 따로 준비했단다.”**

그 때 제단 옆에 있던 풀숲에서
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.

그리고 그곳에는, 하나님께서 준비하신
양 한 마리가 숨어 있었죠.

“아브라함아, 다시 한 번 약속하마.
네가 오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바쳤으니
내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.
밤하늘의 별들처럼, 바닷가의 모래알처럼
수~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내려줄 거란다.
하하하!”

그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었고
제단에 누워 있던 이삭을 꼭 안아주었어요.
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답니다!